

중국조선족민간이야기총서



강희나의 관예연

박병대 수집정리

료녕민족출판사

중국조선족민간이야기총서



갈치나와 관예언

박병대 수집정리

료녕민족출판사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 朴炳大 2011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葛处土的预言：朝鲜文 / 朴炳大收集整理. —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11.6

(中国朝鲜族民间故事丛书)

ISBN 978-7-5497-0140-7

I. ①葛… II. ①朴… III. ①朝鲜族—民间故事—作品集—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77.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1)第094793号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 面 尺 寸：145mm×210mm

印 张：6.625

字 数：150千字

插 页：20

印 数：1-2000

出 版 时 间：2011年6月第1版

印 刷 时 间：2011年6月第1次印刷

责 任 编 辑：权春哲 金顺玉

封 面 设 计：杜 江

插 图：赵 颖

责 任 校 对：边京爱

标准书号：ISBN 978-7-5497-0140-7

定 价：15.00元

联系电话：024-23284336

邮购热线：024-23284335

<http://www.lnmzch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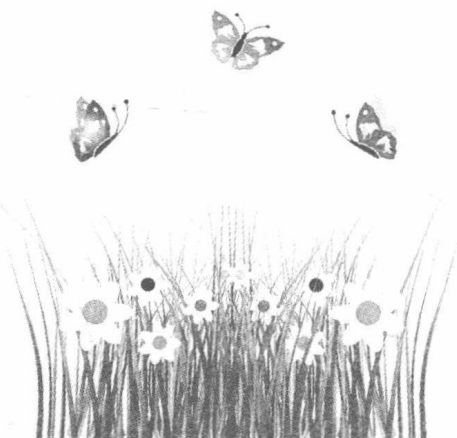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承印厂调换



- 001 | 기이한 보은
- 009 | 갈처사의 예언
- 020 | 맹사성 일화
- 046 | 무수옹(无愁翁)의 이야기
- 054 | 황희정승
- 071 | 로런충의 이야기
- 077 | 상변군의 장기내기
- 085 | 명의우의 상명의
- 095 | 금쥐에 서린 한
- 102 | 아버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
- 108 | 멋진 글풀이와 꿈풀이
- 112 | 넓은 도량으로 음덕을 쌓다
- 121 | 어린 아들덕에 벼슬을 하다
- 127 | 임금의 급소를 찌른 젊은 신하
- 135 | 무식판서 리문원
- 161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 165 | 지혜있는 녀인
188 | 욕심쟁이 사돈을 길들인 이야기
196 | 새 판관의 부임길
206 | 부랑자를 길들인 로정승



I 기이한 보은

001



기
이
한
보
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전의 일이다. 충청도남쪽의 어느 시골에 리씨성을 가진 한 서생이 있었다. 청운의 뜻을 품고 십년동안 글공부를 열심히 한 그는 꿈속에서도 그리던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에서 벼슬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일심정력으로 나라일에 몸바치면 앞길이 창창하리라 생각했었는데 모든 일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조정안은 로론이요, 소론이요 하는 붕당싸움에 하루도 조용할 때가 없었으니 그가 어느 켠에도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로심초사했으나 어느 일도 뜻대로 되는것이 없었다. 나무는 고요히 서있고싶으나 바람이 자지 않고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판이라 주서(注書)라는 미관말직에서 제판에는 일을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안간힘을 썼지만 두켠의 미움만 사게 되어 결국은 벼슬자리를 떼우



고 락향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세말이 다가오는 어느 추운 겨울날, 한참고 설
음많은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가 조치
원에 들어섰을 때는 해가 저물었다. 주막을 찾아
행장을 풀어놓고 언 몸을 녹이고있을 때 밖에서 누
가 다투는지 싸우는지 떠들썩한 소리가 귀를 괴롭
혔다.

“돈이 없으면 가마를 타지 말아야지, 이제 와
서 돈이 없다하면 우리는 어쩐단말이요?”

“내가 서울에 가서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제발 서울까지는 가다오.”

“서울에 갔다오느라면 세전에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겠는데 그렇게는 할수 없소. 어서 로자를 내놓
으시오.”

“하, 내 손에 로자가 있으면 언녕 주지 않았겠
느냐? 적선하는 셈치고 사정을 좀 봐다오.”

리주서가 주막안에서 그들의 말을 얼핏 들어보
니 어찌된 일인지 대개 짐작이 갔다.

“여보시오, 무슨 일을 가지고 목에 피대를 세
워가며 다투고들 있소?”

리주서가 밖에 나와 따지고 묻자 그들은 벌어
진 일을 이야기하였다.

성이 김씨인 폐포파립의 젊은이는 경주에서 살
던 선비였는데 가문이 파락하는바람에 생계를 유지
할수가 없어서 가장집물을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사는 친척에게 위탁하려고 집을 떠났었다. 오던 도중에 강도무리를 만나서 돈이며 재물을 몽땅 털렸는데 설상가상으로 갓난애까지 병에 걸려서 걸어갈 수도 없게 되었다. 그는 서울에 당도하면 품삯을 주겠노라 하고 교군을 구했었다. 재수없는 사람은 모로 넘어져도 코등을 켜다더니 도중에 폭설을 만나서 며칠동안 지체하다나니 예정대로 목적지에 도착할수 없게 되었다. 날자가 지연되자 교군들의 사정도 어렵게 되었다. 그들이 세전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집식구들은 설에 찬방에서 서북풍을 마시게 되겠으니 역시 딱한 사정이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누구를 탓할수도 없는판이였다. 리주서는 자기의 피춤을 만져보았다. 피춤에는 로비와 설 준비에 쓸 풍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보시오. 이렇게 서로 다툼다고 일이 해결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그냥 돌아가시오. 내 손에 약간의 로자가 있으니 이것이나마 아쉬운대로 받아가시오.”

리주서는 피춤에서 엽전 반꾸레미를 끌러 교군들에게 주어보냈다. 리주서가 시골선비의 단장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한겨울에 홑옷을 입은 두 사람은 며칠이나 굶었는지 피골이 상접하고 물골이 말이 아니였다. 그리고 강보에 싸인 갓난애를 보니 낮빛이 창백한데다 기침을 심하게 짓고있었다. 이대로 놔뒀다간 랑주도 길에서 동사하기 십상

팔구였고 병든 애는 더구나 살리기가 어려울것 같았다. (내 사정이 비록 어렵긴 하지만 사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어이 그냥 있겠는가? 기왕 남을 돕는바에는 끝까지 도와야지.) 하고 생각한 그는 랑주를 주막안으로 데려온 뒤 의원을 불러 어린애의 병부터 치료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괴춤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그들에게 주고나서 교군을 불러 그들을 서울까지 데려다주도록 하였다. 그는 어린애가 중도에 또 고별에 걸릴가봐 자기가 입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아이를 씌워주게 하였다.



생면부지의 은인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김씨부부는 너무도 감동되어 콩알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었다. 그들은 리주서에게 이마가 벗어지



도록 연신 절을 올리면서 이 태산같은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은인에게서 어디에 사시고 또 성함은 어떻게 쓰는가고 물었으나 리주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니 그런것은 알 필요가 없다며 극력 사절하였다. 량주가 주소성명을 대주지 않으면 자리를 뜨지 않겠다면서 재삼 사정해서야 성은 리씨이고 조정에서 주서로 있다가 충청도 시골로 낙향해 가는중이라고만 말하고 돌아섰다.

시골에 돌아온 리주서는 벼슬에 뜻을 꺾고 빈한하나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어느날 리주서의 집에 서울에서 왕사(王使)가 찾아왔다.

“리아무개는 어명을 받으시오.”

리주서가 황급히 뜰에 나가 부복하자 왕사는 리주서더러 즉시 입궐하라는 어명을 전하였다. 리주서는 너무도 놀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그는 조정에 당파싸움이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미관말직에 있던 자기를 조정에서 찾는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조정에서 사람을 잘못 찾을리도 없었다. 오리무중에 빠진 그는 왕이 계시는 북쪽을 향해 절을 두번 올려 사은하고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며칠뒤 서울에 들어서자 왕사는 리주서에게 려인숙을 찾아주면서 조정에서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르고는 가버렸다.

이튿날 아침, 김대감댁에서 록사가 찾아왔다. 그는 리주서를 보고 대감께서 댁에 청하시니 그리로 가자고 하였다.

“저를 부르시는 대감은 누구시오?”

리주서가 궁금증을 풀려고 이렇게 묻자 록사는 “우리 주인량반은 왕의 장인이시고 령돈녕부사의 오홍부원군이시며 금위대장으로 계시는 김한구 대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에 계시는 정일품의 존귀한 대감께서 자신을 초청한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리주서는 자신이 무슨 정신으로 대감댁의 대문앞에 이르렀는지도 몰랐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은인께서 도중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리주서가 고개를 번쩍 들고 쳐다보니 대감이 직접 대문까지 나와서 그를 맞이했다.

“은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소인은 몸둘바를 모르겠소이다.”

“은인께서 저를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은인께서 15년전에 조치원에서 구해줘서 무사히 상경한 김한구올시다. 어서 사랑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김대감은 리주서를 사랑방에 모셔놓고 산해진미로 주안상을 푸짐하게 차려 대접하면서 지난날에



겪은 풍상고초를 이야기하였다. 리주서가 그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마치 꿈나라에 들어선것만 같아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었다.

리주서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 서울에 올라와서 친척의 도움으로 어렵게나마 살아오던 그들에게 꿈에도 생각해볼수 없는 행운이 떨어졌다. 따님이 열다섯살나던 해에 영조대왕이 계비를 맞았는데 그 왕비가 바로 리주서의 구원을 받아 살아난 김한구의 따님이였다. 하루아침에 국모로 된 정순왕후는 자기가 이런 영광을 입게 된것은 리주서의 덕분이라는것을 깊이깊이 느꼈다. 그는 비록 리주서라는 분을 알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구명은인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어느때든 가운이 퍼지면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리라고 마음먹고있었다. 그런데 이제 왕후라는 존위에 올랐으니 은혜를 갚기는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는 적당한 기회를 빌어 대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작심하였다.

어느날, 영조왕이 내전에 들어왔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에게 자신이 강보에 있을 때 겪은 일을 상세히 아뢰고나서 리주서가 그때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오늘이 없다고 말하였다.

“리씨야말로 진정한 선비로다. 과인이 어찌 가까운 인재를 초야에 묻혀있게 하겠는가?”



왕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던 영조왕은 이튿날 조회때 문무백관들앞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나서 홍문관교리에게 15년전에 주서로 있다가 락향한 리아무개의 행방을 알아서 그를 입궐시키라는 명을 내렸던것이였다.

김한구의 집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난 리주서는 이튿날 입궐하여 임금을 뵈옵게 되였다. 영조대왕은 룡상에서 내려 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정말로 장한 일을 했노라고 치하하고나서 그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였다. 임금과 부원군의 신임과 사랑을 받은 그의 벼슬길은 걸림돌이 없었다. 일심정력으로 조정의 일을 돌본 그는 뒤에 더 높은 관직에 올랐고 자손도 번창했다 한다.

2006. 1



I 갈처사의 예언

조선조 제19대 왕인 숙종대왕은 재위시에 일심정력으로 국사를 돌봐 기후가 순조롭고 국태민안하여 조선왕조의 성군이라 칭송받았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숙종대왕은 조정에 조회가 없는 틈을 타서 시골의 인정세태를 살피려고 미복을 한채 시종 하나만 데리고 가만히 궁궐을 나섰다.

그가 수원성아래 내가를 지나갈무렵이었다. 웬 더벅머리 시골총각이 끼이끼이 슬피 울면서 내가에다 구덩이를 파고있었다. 구덩이옆에는 빈 지게가 있고 그곁에는 거적으로 싸서 묶은 시신이 있었다. 보아하니 총각이 지친의 무덤을 파는게 분명하였다.

(아무리 집이 가난하여 선산마저 없더라도 하필이면 산소를 산기슭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물이

흐르는 내가에 정한단말인가?) 숙종대왕은 묵묵히 서서 총각이 파는 무덤바닥을 바라보았다. 땅은 한 자 깊이도 채 파지 못했는데 웅덩이에서 누런 흙물이 솟아나고있었다.

“이보게 총각, 지금 거기서 뭘 하고있나?”



숙종대왕이 시치미를 따고 넌지시 묻자 더벅머리총각은 샘솟는 눈물을 연신 소매에 닦으면서 대답했다.

“산소를 마련하고있나이다.”

“산소라? 어이하여 산비탈도 아니고 들도 아닌 내가에 산소를 정했느냐?”

“소인도 산소를 내가에 잡으면 안된다는 도리는 알고있습니다만 이럴 사정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럴 사정이 있다니 어디 한번 말해보게.”



“소인은 엿저녁에 모친의 상을 당했나이다. 아침에 갈처사라는 지관이 소인의 집을 찾아오셔서 모친의 산소를 반드시 여기다 정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가셨기때문입니다.”

“갈처사라? 참 심보를 고약하게 쓰는 사람이구나. 내가에 산소를 정해서 안되는 도리는 삼척동자도 다 알터인데 아무리 가난하고 어리무던한 농사꾼이라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희롱해서야 될 일이나? 갈처사가 어디에 사는지 아느냐?”

숙종대왕이 묻자 총각은 손가락으로 강가에 있는 작은 산꼭대기를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저기 저 산꼭대기에 살고계십니다.”

숙종대왕이 누데기를 걸친 더벅머리상주를 보니 불쌍하기가 그지없었다. 모친의 장사를 지내는 데 상두군도 하나 없이 홀로 지계에 시신을 지고왔으니 집이 얼마나 찌지게 가난하면 이 꼴이겠는가? 불쌍한 총각을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품에 지니고 다니는 벼루에 물을 조금 붓고 먹을 갈더니 종이에 글자 몇줄 적고나서 총각을 보고 분부했다.

“이보게 총각, 시신은 내가 지켜줄터이니 이 글쪽지를 수원부사에게 가져다주고 오게.”

낮선 선비의 부탁을 받은 총각은 오늘 일이 도대체 어인 영문인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엿저녁에 모친상을 당했지, 아침에는 갈처사가 찾아와서 내가에 산소를 잡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지, 이

제는 또 낮 모를 선비가 당장 수원부사에게 글썽지를 전하라고 분부하지, 하여튼 선비의 눈치를 보니 그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한다는것만은 불보듯 뻔하자 시골총각은 허리를 낮모양으로 굽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고나서 글썽지를 들고 수원성안으로 달려갔다.

총각이 무사히 수원성문을 들어가서 관청을 찾아 부사에게 글썽지를 올렸더니 글썽지를 펼쳐본 수원부사는 화뜰 놀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떠는 데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돈아났다. 썽지의 첫머리에는 “어명”이란 글자가 큼직하게 적혀있었는데 내용인즉 즉시 벼 삼백가마니를 이 총각덕에 가져다주고 지관을 데리고 명당을 찾아 총각의 모친의 장례를 정중히 치러주라는 왕명이였다.

수원부사는 부랴부랴 룡방관속을 불러들여 국고에서 벼가마니를 꺼내 바리바리 신게 하고 유명하다는 지관을 데리고 명당을 찾아 총각 모친의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시골총각은 오늘 내가에서 자기에게 썽지를 써준 선비차림의 량반이 만백성이 우러르는 금상인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마음같아서는 당장 선비한테 날아가서 엎드려 이마를 꿇으며 감사를 드리고싶었지만 수원부사의 장례군들과 함께 떠나라는 분부때문에 불같은 가슴을 가까스로 식히며 떠날 시각을 애타게 기다리고있었다.